

속표지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복지 예산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 꼭 필요한 때에 골고루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전달되는지, 또 불법수급자가 없는지, 수급자들의 재화나 서비스에 남용과 오용을 막을 수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시민운동차원에서 감시, 감독 연구를 통한 시민 옴부즈만 역할을 하고, 대안 제시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 차

프로그램(식순)

인사말	5
-----------	---

[제 1 주제] 노인 자살률 낮출 수 없나?

－ 대인관계 이론을 중심으로 －

발 표 : 현 명 호 교수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9
--	---

토 론 : 양 두 석 교수 (안실연 자살예방 센터장)	17
--	----

[제 2 주제] 한국 노인의 고령화 과정에서의 자살위기 진단

－ 나이 들에 대한 사회적 통증과 배제 －

발 표 : 박 지 영 교수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3
--	----

토 론 : 김 종 래 대표 (복지연합신문)	35
--------------------------------------	----

[부 록]

본 연구회 연혁 / 공지사항	39
-----------------------	----

프로그램

1부

사회 : 문 승 권 박사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운영위원

- 1) 개회선언
- 2) 국민의례
- 3) 인사말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4) 축 사 신 상 진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 상 목 회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前보건복지부 장관)

2부

조 정 철 회장 前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제 1 주제 : 노인 자살률 낮출 수 없나? - 대인관계 이론을 중심으로 -

발 표 : 현 명 호 교수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토 론 : 양 두 석 교수 (안실연 자살예방 센터장)

제 2 주제 : 한국 노인의 고령화 과정에서의 자살위기 진단

- 나이 들에 대한 사회적 통증과 배제 -

발 표 : 박 지 영 교수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 론 : 김 종 례 대표 (복지연합신문)

참가자 질의 / 응답

총 마무리 발언 : 조 성 철 (前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인 사 말

결실의 계절로 풍성한 10월의 어느 멋진 날인 오늘 이 자리에 귀한 발걸음을 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창립 9주년을 기념 겸한 토론회 장입니다. 그동안 저희 연구회를 성원 해 주시고 격려 해 주신 모든 들과 특히, 이 자리에 참석 해 주신 분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일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만든 제 22회 ‘노인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대수명(2016년)은 82.4년으로 OECD 국가 평균(80.8년)보다 1.6년 길고 올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중이 14%를 넘어서며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100세 시대를 앞두고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의 3배로 13년 동안 노인자살률 세계 1위라는 아주 부끄럽고 참담한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노인 됩니다. 피해 갈 수 없는 진리입니다. 노인이 되면 겪게 되는 貧苦, 孤獨苦, 無爲苦, 病苦 즉 4苦를 정부나 학계, 시민단체, 기업 등 범사회적으로 같이 고민하지 않으면 이 부끄럽고 참담한 수치는 지속 될 것입니다.

노인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곧 우리가 바라고 지향해야 할 사회가 아닐까요?

오늘 토론회는 이러한 바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나비의 날개 짓이 계속되어 큰 바람을 일으키듯 이런 노인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토론회, 시민운동 등이 계속 된다면 조금씩 낮추어지겠지요.

이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 해 주신 조성철 전 한국사회복지사회협회 회장님과 주제발표를 해 주실 현명호 교수님, 박지영 교수님, 토론자로 참여 해주신 양두석 안실련 자살예방센터장님, 김종래 복지연합대표님께 감사를 드리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 분이신 만큼 알찬 대안 마련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8. 10. 16

이 정 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축 사

신 상 진 국회의원

노인자살, 사회와의 접촉으로 예방해야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상진 국회의원입니다.

오늘은 음력 9.9 중양절(重陽節)입니다. 중국에서 유래한 명절인 중양절은 ‘오래가다’의 뜻을 가진 한자인 ‘구(久)’와 발음이 비슷해서 장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입니다만 아이러니 하게도 노인들의 자살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창립 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2009년 12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선진복지사회 건설”을 슬로건으로 창립한 이래 지금까지 무려 115회에 걸친 정책 토론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복지미래를 고민하는데 열정을 바치고 계신 이정숙 회장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 준비에 고생하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지만, 노인 4명 중 1명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는 인권위의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보다 소득이 낮거나 비슷한 나라들의 자살률이 낮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이를 ‘한국의 수치’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부끄러운 2018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사회적 단절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매일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만 실제 많은 노인들이 사회로부터 배제되어 외롭고 힘든 노후를 보내면서 자살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1986년 세계 최초로 국가가 주도하는 자살예방프로젝트를 실시한 핀란드 정부는 자살이 국민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생산노동인구를 감소시켜 국가경쟁력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인식했으며, 그에 따른 예방프로그램은 의학적 치료만큼이나 사회와의 접촉을 강조하였습니다.

고귀한 생애의 끝자락에 이른 삶을 하찮은 죽음으로 방치하는 것은 국가적 재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파른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문제를 풀어갈 즉각적이고도 대담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창립 9주년을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서 상 목 회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前 보건복지부 장관)

먼저 2018년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창립 9주년을 축하드리며 이를 기념하여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뜻깊은 노인자살예방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축사를 맡아주신 신상진 국회의원님, 노인자살예방 토론회에 참여하신 여러 교수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한국사회는 새로운 희망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국의 항구적 평화와 공동번영의 꿈이 영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빛과 어둠이 뚜렷합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고 특히 고령화가 급격히 증가세를 보이며 2018년에는 노인인구가 14.3%가 되어 2000년에 노인인구 7%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래 불과 18년 만에 고령사회로 들어섰습니다. 또한 노인빈곤율, 노인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최악의 위험사회를 보이며 세계노인복지지표가 100여개 조사 국가 중 6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자살예방 문제는 소득 3만 불 시대를 넘은 한국이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어 문재인정부도 출범 직후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정과제에 처음으로 자살예방대책을 포함시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노인자살예방 대안과 더불어 노인빈곤, 노인일자리, 노인의료지원 등 다양한 노인케어 해결방안이 제시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몇 가지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는 국가중심의 노인케어에서 지역사회중심의 노인복지공동체를 구축되어야 합니다. 노인이 행복한 복지공동체만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여는 선진복지 한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와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가정 내에서 노인을 위한 돌봄, 일자리 등을 마련하여 아이부터 노인세대까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지공동체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노년은 인생의 황금기’라는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 스위스, 캐나다 등 선진국처럼 따뜻하고 활기찬 지역복지공동체의 모습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다가오는 2025년에는 노인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됩니다. 인생 100세 시대라는 것은 이제는 어제, 내일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노인자살을 적극적으로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노인 일자리복지를 통한 인간성 상실감 회복과 고립감에서 벗어난 자립심을 심어주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노인복지 천국, 북유럽 국가처럼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영위해 가기 위한 일과 건강이 보장된 노인 일자리 복지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청년과 노인세대 간 상생의 시대를 열어가는 사회통합정책이 정부는 물론 시민사회 등과 함께 통합과 화합의 사회여론을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최근 OECD 사회통합지수에 의하면 남미 멕시코, 칠레 국가보다도 낮은 사회관계지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합의와 통합의 한국사회로 만들어 가는 것이 아이부터 노인세대가 행복한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는 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사회중심의 선진화된 노인복지생태계를 조성해 가기 위해 사람과 자본, 시스템이 잘 연계되어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 기업, 사회단체 등 공동협력이 필요합니다. 공공과민간의 나눔과 사회공헌활동이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게 하여 국민이 요구하는 사회적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고 나아가 상생과 통합의 사회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를 통해 작은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 아이부터 노인까지 전 생애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지한국을 만들어 갈 좋은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노인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토론회에 참석하신 사회복지계, 학계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1 주제]

노인 자살률 낮출 수 없나?

-대인관계 이론을 중심으로-

현 명 호 교 수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생명문화학회 회장

1. 도입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부동의 1위 자리를 10여년 넘게 유지하고 있다. 지난 2년간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자살률의 증가속도 역시 20년 사이에 3배로 증가하였다. 즉 자살을 많이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자살의 증가속도를 어떻게 늦추는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해야 하는 슬픈 현실을 우리는 보아오고 있다. ‘자살공화국’이라는 말이 전혀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 눈 앞에 펼쳐져 보이는 자살의 현실적인 모습은 외면하려고 해도 외면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자살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자살률의 급격한 증가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IMF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하루에 약 10여명이 자살을 하였던 1990년대에 비해 2016년에는 하루 36명, 일년에 13,092명이 자살하였다는 보고를 우리는 익히 보아왔다. 이처럼 우리의 자살은 사회경제적 변화가 나타나면서 가히 두려울 정도로 급증하였다.

둘째 모방자살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연예인의 자살과 유명 정치인의 자살 등이 보도되고 나면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견된다. 이러한 모방자살이 많은 것에서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집단주의적인 경향이 있음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자신과 유사한 면을 다소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살을 하였을 때 이를 모방함으로서 동일시하려고 하고, 동조하는 행동이 우리 자살의 한 특징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는 노인자살률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사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살은 뉴질랜드 등에 비교하여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즉 OECD 여러 나라의 청소년 자살률보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조금 낮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자살이 자주 회자되는 것은 청소년의 자살이라는 점에서 좀더 주목을 끌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보이고, 이것이 매스컴을 통해 널리 소개된 것이 그 원인이 아닐까 생각된다.

우리나라 노인의 자살률은 70대 이상을 기준으로 보면 10만명당 60명을 넘는 수치로 전체 평균의 2배 이상이다. 이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노인 자살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다른 연령대의 자살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에도 70대 이상의 자살은 도리어 다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이러한 노인의 자살률 증가에는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생물학적으로 노화가 진행되면서 삶의 의욕을 잃게 된다거나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감소하는 것을 들 수도 있을 것이고, 심리적으로 우울감과 외로움, 그리고 소외감 등도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사회적 측면에서 수입의 감소와 사회적 배제 경험은 우리

나라 노인의 자괴감을 증가하시키는 효과를 보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다양한 원인은 단독으로 혹은 종합적으로 노인의 자살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자살에 대해 우울증을 주원인으로 거론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살예방책이라는 것이다. 동의할 수 있는 주장이기는 하다. 그러나 우울증의 진단기준에 자살의 시도가 속해 있다는 점에서 일단 자살을 시도하면 자연히 우울증의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우울증이 원인이라는 점과 우울증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방책이라는 주장에는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우리가 더욱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은 우울증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다. 어찌보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다양한 스트레스와 문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자살의 시도와 우울증이 함께 발생하는 것이지 우울증이 발생해서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만은 없을 것 같다. 즉 동시발생적일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울증의 치료는 자살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중적인 요법에 속하고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고 생각된다.

2. Joiner의 대인관계 심리이론

여기서 우리는 Joiner의 대인관계 심리이론에 기대어 노인 자살문제를 바라보고자 한다. Joiner의 이 이론은 인간관계 특히 어느 조직이나 공동체 문화에서의 관계를 중요하게 본다는 점에서 집단주의 문화가 지배적인 우리 사회에 잘 적용될 수 있는 이론으로 보인다. 또한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에 많이 물 들은 청장년층보다는 아직 집단주의 문화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노년층의 자살현상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Joiner의 이론은 자살에 대한 생각을 갖게 하는 요인과 그러한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행하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우선 자살사고를 일으키는 요인은 순수하게 인간관계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자살사고를 갖게 하는 요인으로 집단에서의 배제나 이탈 등으로 인한 소속감의 좌절과 집단 속의 다른 구성원에 대한 배려나 폐에 근거한 지각된 짐스러움을 들고 있다.

여기서 소속감의 좌절이란 자신이 소속되어 있던 집단이나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되어 이제는 그 공동체에 몸담을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평생직장으로 충성을 하여 오던 회사에서 갑자기 퇴직을 하게 되었다거나 가족의 해체로 인해 자신이 소속되었던 가정을 잃게 되었다는 등의 상황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직장을 위해 일을 처리하던 중 법적 문제가 일어나서 이를 책임지게 된 전문경영인이 이에 대한 내부의 비난을 받으면서 자신이 평생을 헌신한 회사에 다시는 소속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삶의 의욕을 잃게 될 수도 있다.

짐스러움이란 자신의 상황이 공동체에 짐이 되게 되었다는 인식을 말한다. 준비가 없이 큰 병에 걸려서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게 되었다거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나 집단이 외부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가 주변의 중요한 사람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역시 삶의 의욕을 꺾고 스스로 사라지는 것이 남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도록 만든다.

우리의 노년층은 중장년기를 지내오면서 술하게 노후 준비를 하여야 한다는 말을 들어온 세대이다. 그리고 그 위 세대가 자식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아온 세대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많은 어르신은 집단주의 문화의 영향을 벗어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자식이 잘되게 키우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의미가 된다는 생각을 암묵적으로 해온 세대여서 외부로 표현하는 생각과 달리 자식을 위해서라면 많은 것을 포기하고 노후준비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세대라 보인다. 따라서 많은 사회경제적이고 정책적인 보장책이 많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년의 빈곤층이 거의 50%에 육박할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와 아울러 젊은이의 활동반경은 이제 공간적인 지역사회를 넘어서고 있다. 소비의 패턴이 국경선을 넘어섰고, 이제 나라를 넘어서 외국의 소비자를 생각하지 않고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 사회를 살고 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인식하고 멈추게 될 때 도태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살고 있다. 따라서 이전의 부모 세대와 다른 생활패턴을 영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는 이전부터 개인주의의 삶을 살아온 서구와 달리 갑작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이게 된 우리의 노인층에게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한다. 특히 주변사람의 시선을 매우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노년층은 자녀와의 왕래나 연락 등이 외부로 보이게 될 때 이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서 반대로 그러한 점을 자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소극적으로 웅크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와 함께 우리의 지역사회는 외부인의 진입에 다소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기존의 공동체를 벗어나는 것과 낯선 공동체에 진입하는 것을 매우 불안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의 소속하고 있는 지역이나 종교, 가족, 학연 등의 공동체에서 이탈되었을 때 그 충격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고 이것이 우리 사회의 노인 자살사고 증가의 한 원인이 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마찬가지로 노인이 되면서 신체적으로 쇠약해지고 경제적으로 빈곤해지면서 주변에 의존하는 경향은 증가하게 된다. 그나마 노부부가 함께 서로를 돌보면서 지낼 수 있는 준비가 된 초로의 경우에는 서로 의지하면서 지낼 수 있게 되겠지만 점차 연령이 증가하고 준비해 둔 경제적 여유가 사라지면서 질병마저 갖게 되면서 의존하여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노인으로 하여금 주변 사람에게 손을 벌리고 도움을 받는 것이

부담스럽게 여겨지게 되고 애뜻하게 키워온 자녀에게 어려움을 전가하게 된 자신의 모습을 부정적인 눈으로 보게 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특히 집단주의 문화의 영향이 큰 우리 어르신은 가족의 평화와 행복에 자신이 큰 짐인 것처럼 여기게 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공동체에 소속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과 주변 사람에 대한 부담감을 지우게 되었다는 인식은 노인으로 하여금 극단적인 마음을 갖게 할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자살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요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극단적 선택을 하지는 않게 될 것이다. 그것을 Joiner는 획득된 자살의 잠재력이라는 말로 개념화하고 있는데, 결국 그 말은 고통에 둔감해지는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Joiner는 아동기의 학대경험이나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에 노출되는 것, 신체에 고통을 주게 되는 행동에 익숙해져 있는 것 등이 그 잠재력을 증대시킨다고 한다. 이러한 폭력에 노출되는 것은 고통에 익숙해지고 둔감해지게 되어 죽음이라는 행위에 수반되는 고통을 가볍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최근 청소년에게서 많이 발견되는 자해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자해를 하는 청소년은 스스로 자신에게 가하는 위험한 행동을 통해 심리적인 각성을 감소시켜 왔는데 처음에는 가벼운 자해를 통해서도 각성이 감소하는 안도감을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 심각도와 강도를 높여야만 각성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자해가 목적이었던 것이 이제는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정도까지 강도가 증가하게 되어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Joiner는 획득된 자살의 잠재력이라고 한 것이다.

발표자의 연구에서도 국내에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도 자살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과 대처에 대한 신념이었고 두 번째는 죽음의 공포와 비난이었으며, 세 번째는 가족에 대한 책임과 자녀에 대한 걱정, 그리고 마지막은 미래에 대한 기대였다. 여기서 첫 번째는 스스로 살아야겠다는 신념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볼 때 실질적으로 자살을 시도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죽음에 대한 공포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이 죽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도 이를 시도하지 않는 이유에 분명히 죽음이라는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공포가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자주 폭력에 노출되면 이러한 공포심과 두려움이 감소하여 행위를 시도할 가능성을 증가시키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3.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우리의 어르신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시기를 지내오셨고, 한국전쟁이라는 극단적인 폭력 상황에 노출되었던 분들이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각종 폭력에 노출되었던 경험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다. 군에서의 폭력도 일상화되어 있었고, 각종 시위와 폭력사태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자주 볼 수 있었다. 가정의 폭력은 가정의 일이라 하여 타인이 개입하면 안 되는 것으로 보여 그대로 폭력에 노출되기도 하였었다. 이러한 시기를 살아오신 어르신의 획득된 자살의 잠재력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는 이미 과거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Joiner의 의견을 그대로 차용한다면 자살의 잠재력은 지금으로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자살사고를 갖지 않도록 하는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공동체를 건강하게 구성하고 각종 자구책이나 지원책을 강구하여 부담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노인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지역 공동체를 건강하게 구성하기 위해 노인이 참여하는 사회활동지원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려면 사업이라는 무게보다는 놀이와 같은 형식, 축제와 같은 형식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많은 지역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있고, 대부분의 축제는 경제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경제적 측면이 아닌 지역사회의 노인과 젊은 사람의 소통의 자리가 되도록 하는 인간적 측면을 강조하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언하고 싶다. 돈보다는 주변에 계시지만 평소에 관심을 두지 못했던 어르신에 대한 관심을 두고 함께 하는 행사로 변경하려는 노력을 박수 치면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성북구 등에서 노인을 일정한 시점을 두고 찾아가서 안부를 묻는 사업, 노인의 여러 가지 경험을 청소년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등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인이 자신이 이제 부담이 되는 존재가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가장 큰 사건을 질병이라 생각된다. 사실 많은 자녀가 경제적으로 고민하게 되는 사건도 부모의 질병이다. 특히 노인의 질병은 회복보다는 대증요법적으로 증세를 완화하고 고통을 줄이며, 그 질병을 안고 살면서도 통제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라면 이러한 치료를 위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노인은 한 세대를 책임지고 우리 사회를 이끌어온 분이다. 우리 역시 곧 그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이며, 평균수명을 유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이러한 길을 피할 수 없다. 그러한 노인이 삶을 중단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눈감고 못 본척 하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자세는 우리 어르신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위한 적절한 준비도 아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도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심각한 고민을 하여야 하는 때가 왔음을 왜 우리는 애써 들여다보고 있지 않았는가 자괴감이 든다.

노령사회에 진입했다는 말을 매스컴을 통해 들어서 모두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그 노령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노인이 불행하다면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는 없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토 론 문

양 두 석 교수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자살예방센터장)

1. 노인자살 현황

2015년 10만명당 58.6명 전체 평균의 2배 OECD국가의 3배

2. 자살의 원인

- 가. 은퇴, 사회적 역할의 축소, 관계망 위축
- 나. 소득 감소, 요양비 증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 다. 가족 외면으로 인한 고독, 소외감 및 절망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경험
- 라. 부인과 사별 및 갈등 → 외로움, 추종 및 모방자살 심화
- 마. 건강악화, 감각기관의 저하 및 쇠퇴

3. 노인 자살의 특징

노인은 치밀하게 준비하여 실패 확률이 적으나 자살준비 기간이 길어 징후 발견이 쉬우므로 시도도 쉽게 막을 수 있다

4. 노인 자살의 징후

- 가. 감정으로 표현
 - 근심과 슬픔이 가득한 표정- 자주 눈물을 흘린다
 - 감정을 잃어버린 멍한 표정
- 나. 말로 표현한다
 - 더 살아서 뭐하냐 죽고 싶다 말을 반복
 - 죽고 싶다는 말은 도와 달라는 말과 같으므로 문제 해결 필요함
 -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살만큼 살았다
 - 너희들에게 부담되기 싫다, 자식들에게 어머니/아버지 잘 모셔라 당부의 말
 - 난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
- 다. 자살을 하려는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한다
 - 혼자 있으려 한다 - 옷차림이나 위생에 신경을 안쓴다
 - 술을 많이 마신다 - 병에 걸려도 약을 먹지 않는다
 - 이불 빨기, 소중한 여기던 물건을 나누워 준다
 - 약을 구입하여 모은다 - 이것이 너와 나의 마지막 만남될 것 같다
 -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더 이상은 오지 않을 것 같다
 - 가족을 위해 무언가 사놓기

- 자신의 소식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음
- 주변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는등 평소와는 다른 특이한 행동함

5. 자살 징후자에게 할 일

- 집중해서 듣기, 상대방 감정이해와 공감하기
- 상대방 의견존중, 당신의 관심, 도움의지, 따뜻함을 표시

6. 자살 징후자에게 하지 말 일

- 상대방 말을 끊지 말 것, 충격을 받았다는 느낌을 주지 말 것
- 바쁘다는 뉘앙스를 풍기지말 것. 베푸는 듯한 느낌을 주지말 것
- 부담을 주는 질문을 삼가기

7. 자살하면 안되는 7가지 이유

- 생명은 하나 , 다시 못 돌림
- 나의 자살로 가족들에게 말 못할 엄청난 고통을 주고 영원한 상처 준
(자살자 1명이 생존자 6명에게 영향을 끼침 예. 최진실- 조성민- 최진영 연쇄자살)
- 자살외에 더 좋은 해결 방안이 있다
- 중요한 인재가 죽으면 국가나 사회적으로 큰 손실
(노인1명이 사망하면 도서관이 없어짐)
- 죽으면 행복한 가정을 꾸리지 못한다
-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깝다
- 죽기 전에 해야할 일을 포기하는 것이다

8. 자살예방, 행복의 기술

전화, 선물, 대화, 낙관, 감사, 유머, 공감, 용서, 봉사, 미소

9. 노인자살 예방전략

- 말벗 연결하여 정서적 지지 → 지역사회와 이웃들의 관심 필요
- 노인상담 서비스, 노인의 전화
- 노인 복지제도와 연결, 경제적 지원
- 평생교육 프로그램, 경로당, 노인 복지관 연결

- 은퇴준비 교육프로그램, 노후 설계지원
- 노인취업 알선, 노인 인력 은행제도 활용
- 지속적인, 종교활동, 봉사활동, 사회활동
(일본은 정년 퇴직후에도 구청등에서 80 세까지 봉사)

10. 제도적 개선대책

- 정부지원하에 지자체단체장들의 강력한 의지로 예산이 편성된 노인 자살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 지역의 독고노인등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후 치료기관과 연계체계 구축 및 구호 체계 마련
- 지자체별로 노인 자살예방을 위한 의사, 변호사, 상담사, 종교단체, 시민단체등 이 참여 하는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 농민 자살예방을 위해 농약보관함 지원 및 관리

[제 2 주제]

한국 노인의 고령화 과정에서의 자살위기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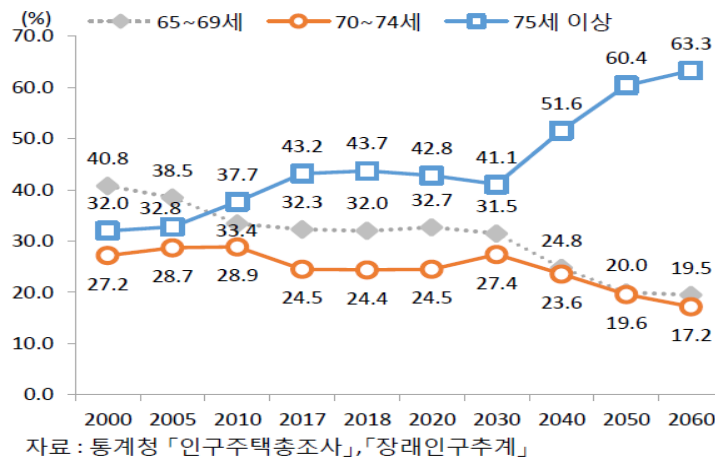
-나이듦에 대한 사회적 통증과 배제-

박 지 영 교 수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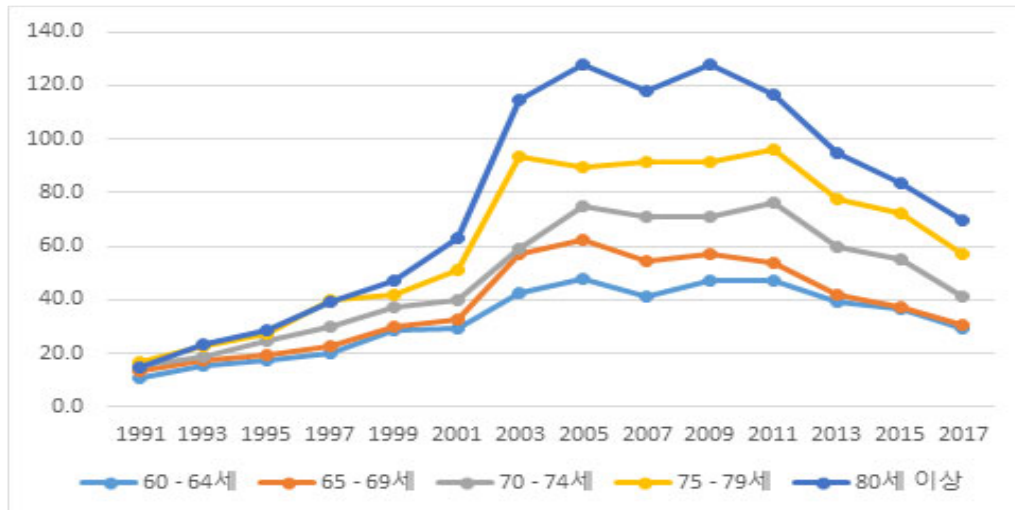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이미 그 증가속도나 증가율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기록이다. 1960년 2.9%였던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은 2000년, 7.2%, 2018년엔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63만5천명 중 노인인구 738만1천명으로 14.3%가 되었다. 2000년 노인인구 7%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래 불과 18년 만에 고령사회로 들어선 것이다.



〈그림 1〉 고령자 연령대별 구성비

반면 노인계층의 사회적 고통감을 측정하는 대표지표인 자살률은 고령화의 속도에 비해 더욱 가속적이었다. 1983년 인구십만명당 14.1명이었던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자살률은 1994년 20.4명, 그리고 IMF 외환위기였던 1996년과 1997년엔 각각 29.0명, 30.5명으로 이례적인 자살률 상승현상을 보였으며, 급기야 2010년엔 81.9명이라는 최고기록에 다다랐다. OECD 가입국 중 자살률 1위, 그리고 노인자살률의 급격한 증가가 계속되면서 2011년, 국가 차원에서 주요한 자살예방전략기제가 형성되었는데, 그 하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자살예방의 제도적 기반을 형성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 주요 자살수단이었던 음독, 특히 독성이 높았던 농약(그라목손)에 대한 생산과 판매를 중지하고, 통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노력의 효과였는지 인과관계와 영향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으나, 2011년 이후로 노인자살률은 조금씩 감소추세로 전환되었고 2018년 9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년 65세 이상 노인자살률은 47.7명/인구10만명으로 <그림 2>와 같이 2011년 이후 8년 동안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자살률 감소에 안도하기 보다 이러한 자살률 감소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전략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 근거 중 하나는 바로 우리나라 자살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노인인구에 대한

이해이며, 또한 자살로 인해 우리가 이미 상실한 노인사망자 -1991년 이래 우리나라 노인자살사망자수는 총 84,041명으로 이중 남성노인 55,621명, 여성노인은 28,420명임에 대한 분석적인 이해이다.



〈그림 2〉 우리나라 노인자살률(1991-2017)

지금까지 노인자살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다양한 노인자살위험요인들을 제시해왔다. 경제적 빈곤, 가족관계갈등, 건강 및 신체적 고통, 우울, 무망감 등의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문제들, 알코올 중독 등이 사회복지, 정신의학, 심리학, 간호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노인자살의 위험요인들로 지적되어왔다. 이러한 위험요인들의 특성은 매우 개인적이고 병리적인 특성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노인자살이 사회계층적이고 한 사회의 역사적이고 사회경제적인 구조적인 특성과 상당히 밀접한 사회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나라의 자살예방은 자살위험요소가 되는 질병과 빈곤, 가족갈등 등 개인과 가족중심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문제중심적이고 치료적이며 무엇보다 개인중심 접근, 즉 국가 자살예방전략의 일차적 기능에 치중해왔다. 이에 본 발표자는 현재의 국가자살예방전략의 방향성을 좀 더 사회적이고 거시통합적인 역할과 책임 범주로까지 확장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현재 노인세대의 고령화 과정에서의 위기를 ‘노동빈곤층’ 중심으로 진단하고, 무엇이 이들에게 자살위험을 초래하는지에 대해 ‘배제’와 ‘사회적 통증’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노인, 배제, 사회적 통증

배제(exclusion)란 누군가가 어떤 장소에 들어가거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Cambridge English Dictionary, 1994). 그러나 이러한 배제현상은 그 과정에서 어떤 구조적 영향력이 작용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WHO(2008)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배제는 경제, 정치, 사회 그리고 문화라는 네 가지 주요 영역에서 개인, 세대, 집단, 지역사회, 국가, 그리고 글로벌 수준을 포함한 다양한 차원들이 상호작용하는 중에,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 의한 역동적이고 다차원적인 과정에서 발생된다. 또한 배제는 건강과 관련된 자원, 능력, 그리고 권리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도 불평등하게 작용함으로써 건강불평등이라는 배제 현상이 계속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개념들을 정리하면 배제는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여러 세계, 사회, 집단, 그리고 그 구성원간 힘의 불균형에 따라 발생하는 불평등 현상이며, 이로 인해 배제의 대상이 되는 어느 개인, 집단, 사회, 국가가 자신들의 필요(need)나 의지(intention)와 상관없이 격리되거나 또는 기회의 방해나 제약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배제의 대상은 힘, 권력, 어떤 결정권을 가진 자보다는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지 못한 개인, 가족, 사회단위가 되며, 동시에 이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를 구성하는 정보, 경제, 정치 등의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통제됨으로써 그 존재의 유지나 역할수행에 치명적인 장애를 입게 된다.

노인에게 배제는 다양한 사회단위에서 발생한다. 일차적으로 가족내 자녀, 배우자와 친구로부터의 배제는 노인에게 심리적 소외, 고립, 절망감을 초래할 수 있는데 조성희, 김경미(2016)는 그들의 연구에서 이러한 일차 집단에서의 배제는 심각한 문제발생시 의지, 걱정거리에 대한 토로, 관계망에 대한 비난, 실망 등 부정적으로 인식되므로써 자살사고를 높일 수 있으며, 이차적으로 노인 자신이 의료, 복지서비스로부터의 배제 경험이 많다고 인식할수록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여기서 가족, 의료, 복지를 다시 의미화해보면 이 세 가지는 노인이 자신의 일상에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보호, 관계, 기능유지에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이 생물학적으로나 심리사회적으로 생존하기 위해 요구되는 필수 환경요건들로부터 배제되었을 때, 자살위험성은 높아진다고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통증(social pain)이란 의미있는 타인이나 집단으로부터 평가절하되거나 혹은 원하는 관계로부터 배척받을 때, 마치 물리적 통증과 유사하게 심리적 통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MacDonald et. al., 2005; 장근영 외, 2015). 이러한 사회적 통증은 사회적 취약성으로부터 작동하는데, 특히 대인관계에서 의미있는 타자로부터의 배제, 소속집단이나

사회로부터의 배제, 정치, 사회, 경제, 문화시스템에서의 배제 등 불평등 또는 불형평적 사회/관계구조로부터 경험되는 것으로 노인 당사자가 이를 인지할 수도 있고, 명확하지 않게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경험을 통해 결과적으로 노인에게 가슴의 답답함, 근골격계 통증과 긴장, 소화 등 내과적인 기능의 장애감, 그리고 불안, 우울, 분노 등을 경험하게 되는 생심리사회적으로(bio-psycho-social) 복합적인 고통감이다(박지영, 2018b).

그런데 이러한 통증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문제, 왜곡되거나 병리적인 문화 등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통증에 노출된 개인이나 집단은 무기력감, 자책감, 자기비난감, 낮은 자존감 등을 경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울, 좌절, 무망감 등을 지속하게 되기 쉽다. 이런 측면에서 자살은 사회적 통증의 가장 극단적이고 최악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노인자살문제에 있어서 배제와 사회적 통증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에 대해 본 발표자는 우리나라 근대화, 산업화의 주역으로 1960년대부터 90년대 봉제산업에 참여했던 여성노동자들의 고령화 과정에서 경험한 자살위기를 생애사적으로 고찰한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노인의 한 계층의 삶과 자살위기에 작동해온 사회, 역사, 문화적 맥락을 짚어보고 이러한 거시적 자살맥락 속에 국가의 자살예방전략이 거시적이고 장기적 측면에서 어떤 관점과 대안들을 마련해야하는지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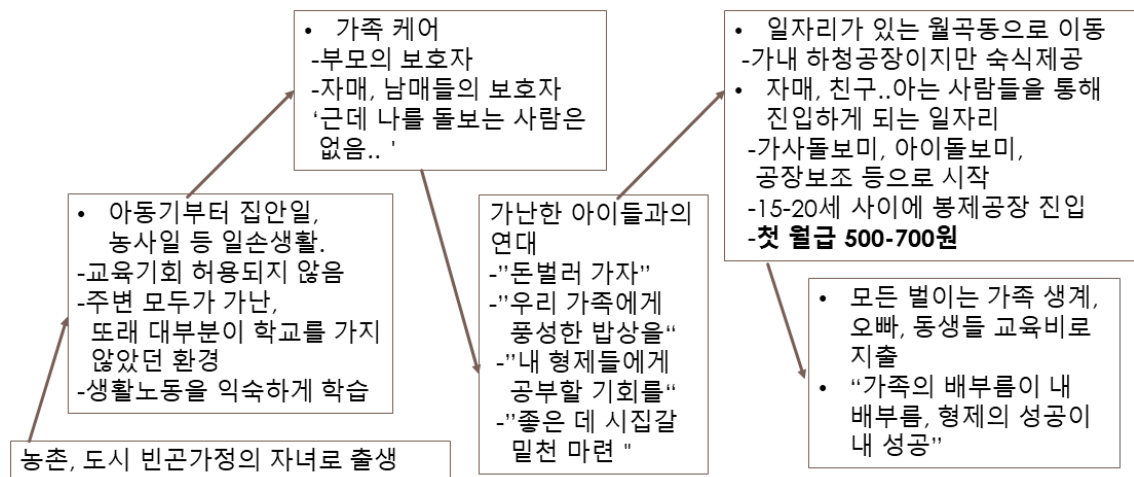
노인, 그들의 생애: 가족, 헌신, 그리고 늙어감¹⁾의 네러티브

아동청소년기: 가난에서 출발된 삶,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시작

그 여성노인들은 대체로 가난한 부모의 계획없는 임신에 의해 태어났으며, 아들이 아닌 탓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다지 존재의 가치감 없이 ‘살림밀천’의 삶이 주어졌다. 학교교육보다는 집안일이나 농사일손을 보태는 역할이 우선되었으며, 어린 나이 때부터 동생들을 케어하는 모성노동자로서의 책임이 주어졌다. 글도, 사회도, 자아감도 깨우치지 못한 10대에, 그들은 가족의 가난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되고, ‘배움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자신’의 불행과 한을 동생들에게는 물려주기 싫어, 기꺼이 임금이 주어지는 공간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1) 본 내용은 2018년도 한국자살예방종합학술대회의 「한국사회의 현상: 빈곤과 자살」 세션에서 주제발표한 ‘한 지역사회, 어떤 빈곤노동자들의 고령화과정과 자살위기경험: 생애사적 재구성’을 일부 인용한 것으로 오랫동안 봉제하청공장들이 밀집해있던 한 지역사회에서 40년 이상 봉제업에 종사하며 노인이 된 여성노동자 3명의 삶을 분석한 내용임.

글도 모르고, 기술도 없고, 숙식을 해결하기 어려웠던 그들에게 최고의 일자리는 ‘숙식이 제공’되고,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어떻게든 자신의 노동의 댓가로 ‘꼬박꼬박 돈을 주는’ 곳이었으며, 이런 요건들을 찾아 들어간 곳이 ‘봉제하청공장’이었다. 그들의 당시 월급은 500-700원, 이중 그들은 약 300-600원을 가족에게 보내고, 남은 돈을 저축하며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넘어갔다. 그 당시 그들의 꿈은 동생들의 성공, 가족의 안위 그리고 ‘티끌모아 태산’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이었다.



〈그림3〉 아동·청소년기 생애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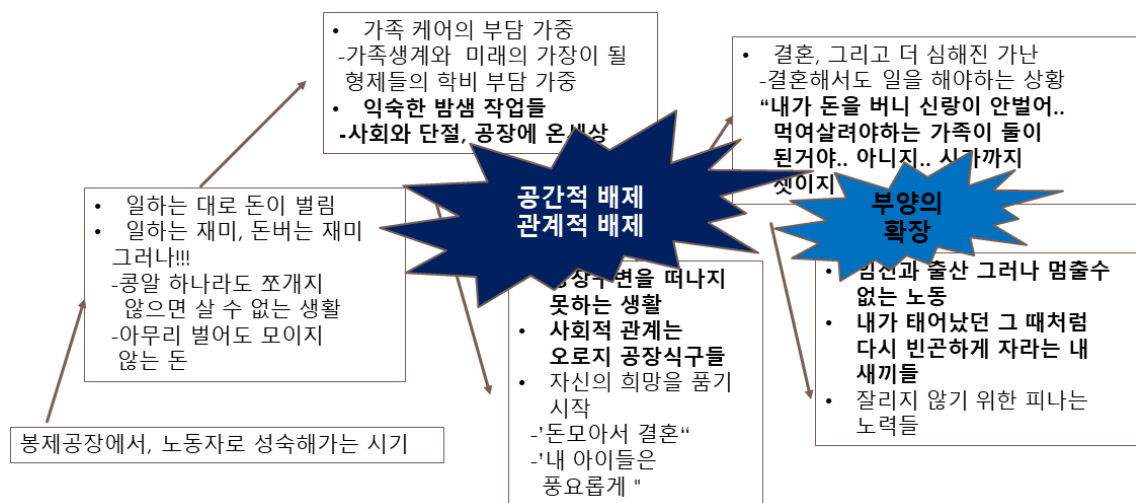
1930-40년대 태어난 이들에게, 태동에서부터 시작된 가난은 개인의 게으름이나 나태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당시 우리나라의 역사적, 경제적 상황에서 개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여건이었다. 빈곤은 이들에게 글, 기술, 사회, 주체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부터 이들을 배제시켰고, 당시 문화에서 여성은 배움과 사회적 참여, 자기성취의 주체보다는 가족보호를 위한 희생자로서의 미덕이 강조되었다. 그래서 그녀들은 이러한 미덕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노년을 선사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보다는 현재의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술한 노동을 지속했으며, 당시 국가 역시 이들에게 사회구성원으로서 학습해야할 최소한의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고, 교육의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인식조차 부재한 상황이었다.

청장년, 고립, 또다른 빈곤의 시작

이들에게 청장년기는 우리나라 봉제산업의 호황기에 봉제공장에서 경험을 통한 기술 숙련성을 인정받고 조금씩 임금이 상승하는 시기였다. 그러나 동시에 청소년기와 초기 청년기를

보내고 있는 형제들의 학업과 노년기에 접어드는 부모 부양 부담이 커지고 더불어 결혼으로 다소 해소될 거라 기대했던 가난이 시댁부양, 자녀 양육 등으로 오히려 부양의 확대, 빈곤의 확대로 지속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청장년기는 부양의 확대로 인해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양의 노동을 해야했으며, 이로 인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야학이나 자신의 노동 옹호를 위한 사회참여의 기회에 접근하지 못했다. 친구도 없고, 가족의 지지도 없이 그들은 자신과 같은 노동자들과 최소한의 관계망을 유지하는 정도에서 자신의 고립된 세계를 구축해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시기에 자신의 가난이 자녀들에겐 대물림 되어선 안된다는 신념과 의지로 자녀들의 학업, 배부른 식탁을 위해 노동에 가속을 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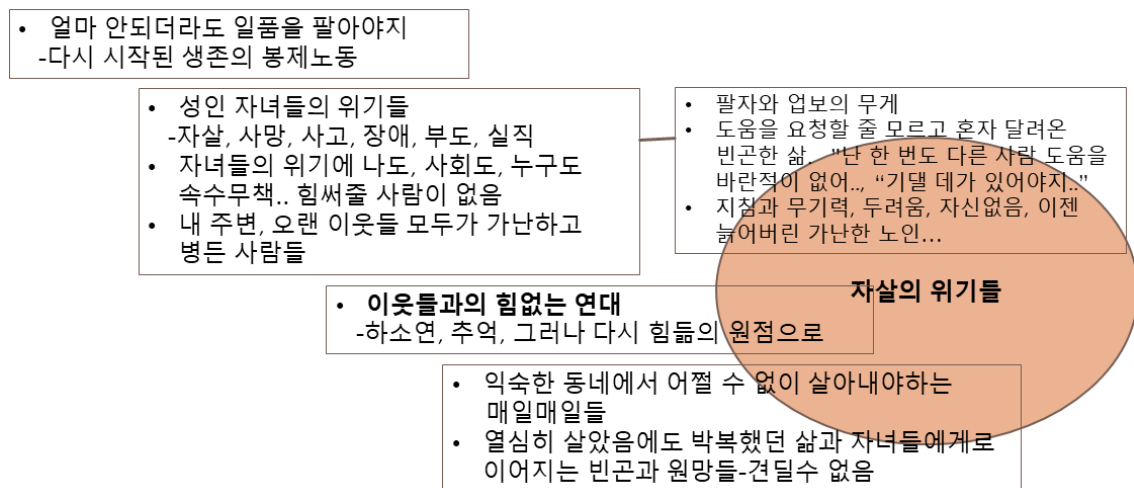
〈그림 4〉 청장년기 생애경로

노년: 다시 시작된 노동, 생존의 문제들

90년대 봉제산업들이 점차 축소되기 시작했고, IMF외환위기는 그나마 소규모봉제하청업체들에겐 쓰나미같은 위기였다. 이들은 직장이 문닫지 않도록 노력들을 했고, 평생을 일해 마련한 20평 남짓한 집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일을 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남편과 청장년기에 접어든 자녀들의 학업중단, 실직, 사업실패 등은 그나마 끈끈하게 묶어두고 싶었던 가족관계의 위기를 초래했다. 자신보다 성공한 동생들의 외면, 여전히 젊어지고 있는 노부모의 부양책임... 등 중년에서 노년으로 진행되는 그들의 삶에는 경제적 빈곤 뿐 아니라 가족들의 실패, 사망, 관계갈등, 절망 등 많은 고통스런 사건들이 연이고 있었다.

그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웃조차 자신과 마찬가지로 힘없는 노인들이다. 그나마 이들과의 힘없는 연대가 지금의 무기력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들은 누군가의

도움보다는 평생을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 스스로 현실을 이겨내고 싶어했다. 사회적 지원대상 자격에서도 이미 빗겨나 사회적인 도움에도 호소하기 어렵지만, 사회적 지원이라는 것이 자신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그동안 놓을 수 없었던 노동을 다시 시작했다. 오랜 봉제일로 인해 마디마디가 구부러지고 관절염에 통증이 심한 손일지라도, 눈감고도 할 수 있는 유일한 일거리들을 찾아 저렴함을 무기로 다시 생존의 노동을 하고 있었다.



〈그림 5〉 노년기 생애경로

자살.. 죽음의 위기들

이렇게 씁쓸이 살아온 이들의 삶에 이들을 지켜줄만한 사회적 관여나 보호는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배제에 노출되었었는지, 어떤 보호를 받았어야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지 못했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했으며, 자신에게 발생한 모든 사건과 문제들을 자신들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자녀의 실종, 자살, 질병으로 인한 사망과 이후 이들이 경험하는 이 자녀들을 지켜내지 못한 자책감, 20평 되지 않는 자신의 집을 담보로 사업했던 자녀의 실패 이후 평생 자녀의 꿈과 부(富)를 위해 번듯하게 뒷바라지하지 못한 자신의 무능감에 대한 원망, 사고로 후천적 장애를 갖게 된 아들 수발의 힘겨움, 낙상 이후 모든 일상이 힘겨워진 고통, 평생을 일했어도 누구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여전히 가난하고 외로운 인생, 열심히 부양한 가족들의 떠나감에 대한 서운함,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내 딸에 대한 미안함...

이들은 이 모든 일들을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신이 죽음으로써 이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정리할 수 있다고 확신했던 적이 있었다.

이들에게 자신의 가난은 사회적으로 불형평적인 고용과 임금구조에서 비롯된 사회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에서 비롯된 개인 문제였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과 자녀들의 불만과 실패를 자신의 게으름, 무지함, 팔자의 결과로 인지하고 자기 비난(self-blame)을 멈추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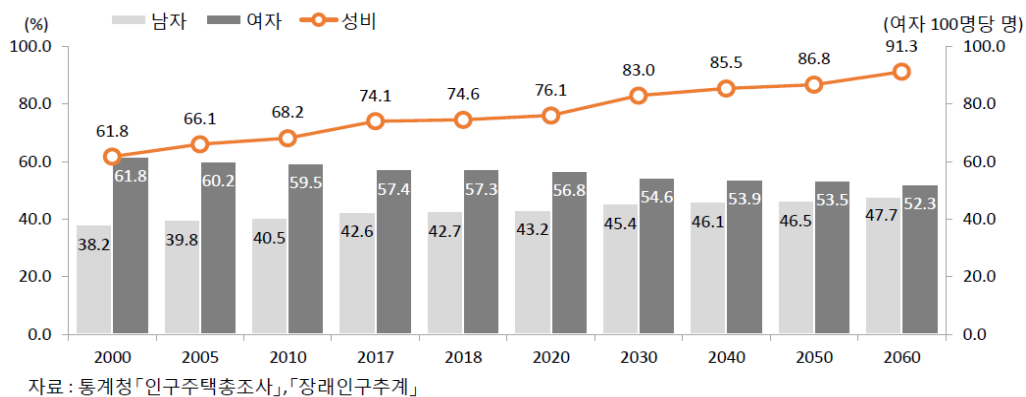
가난이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들은 자신의 가난을 사회가 도와줄 수 없다고 믿고 있었다. 사회적 지원, 서비스는 임시방편이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 여기는 동시에 자신의 빈곤, 가족문제 등은 자신의 노동과 노력을 통해 극복해야하는 것으로 믿었다. 또한 이들에게 가난은 개인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에게서 자녀세대로까지 이어지는 가난의 대물림에 대해선 죄책감을, 그리고 자녀의 빈곤과 갈등이 또다시 노인이 되어버린 자신들에게 노동의 지연과 좌절감을 초래하는 대물림에 대해선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본 발표자는 이들의 생애를 재구성하면서 이들의 빈곤과 가족내 관계의 무너짐, 그리고 이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만큼 무겁게 작동했던 자기 비난과 책임은 어떤 위기와 충격의 사건이나 단순히 일시적인 충동성, 정신건강의 문제 범주를 넘어 이들의 일생에 소소하지만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온 불평등, 차별의 배제와 같은 ‘물방울 좌절’에서 비롯된, 사회구조와 기능에서 비롯된 것이라 강조한다. 그래서 이들이 경험하는 신체적인 고통, 낮은 자존감, 자신의 인생에 대한 회의감, 무력감, 죽고 싶은 마음이야말로 오래고 반복된 배제로부터 초래된 사회적 통증으로 진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애과정과 경험은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세대가 경험해온 전형적인 동시에 사회로부터 충분히 보호되지 않고 있는 노인계층의 어려움이기도 하다.

사회적 자살예방: 배제로부터 통합으로, 사회적 통증에서 사회적 치유로!

2018년 고령자 통계(2018)에서는 현재 우리가 알아야할 노인세대의 주요한 특성들이 제시되어 있다. 본 발표자가 의미있게 살펴본 몇 가지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 인구학적으로 남성노인의 인구 증가율이 매우 높음



〈그림5〉 성별 고령인구 구성비 및 성비

- 생활비 마련수단이 2011년 ‘본인 및 배우자 부담 51.6%에서 2017년 61.8%, 반면 ‘자녀 및 친척 지원’ 39.2%에서 25.7%로 감소하여 노인의 자기생활비 마련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 2018년 현재 노인인구 중 장래근로를 희망하는 노인비율 64.1%
- 근로를 희망하는 이유로 ‘생활비 보탬’으로 응답한 노인이 2015년 57.1%에서 2018년 59%로 생활비 마련 비율이 증가
- 미충족의료(병의원 11.7%, 치과28.8%)의 사유 중 가장 높은 이유가 ‘경제적 이유’
- 사회적 관계망에서 친구, 이웃, 지인과 매일 왕래하는 비율이 2014년도에 비해 2017년 4% 감소

위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해 자살률이 2~2.5배 높은 것을 고려할 때, 남성노인 인구의 증가율을 고려하면 좀 더 남성노인의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복지, 노동, 보건, 교육을 아울러 노인의 경제활동, 의료적 충족율,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할 수 있는 통합 정책들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점차 사회적 소통과 일처리 방식이 첨단화, 자동화, 정보화되어감에 따라 노인세대가 익숙한 기존의 소통, 관계방식이 현대사회에서는 정보적 배제, 문화적 배제, 관계적 배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노인들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노인을 보호적 대상으로 사회의 여러 기회로부터 배제하고 보호기제를 강화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인 노화와 사회변화적응을 위한 교육을 기반으로 기초생활 보장과 사회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기회를 확장해야한다.

노인세대에게 사회적 치유란 상담과 보호적 지원, 의료적 치료를 넘어서서 ‘그들이 살아온 삶’에 대한 사회적 존중, 새로운 미래에 대한 ‘교육’, 그들 스스로 주체가 되어 생존과 생활 이슈를 해결,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그래야 평생을 열심히 노동하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신 삶의 배제와 이로 인한 고립과 가난, 그리고 이러한 배제의 연속선 위에 지속되는 자녀들의 고통들을 스스로 책임지려 자살을 선택하려는 노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

노인들에게 자살은 우울의 병이 아니라 ‘절망’의 끝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박지영(2018a). 한 지역사회, 어떤 빈곤노동자들의 고령화과정과 자살위기경험: 생애사적 재구성. 한국자살예방종합학술대회. 주제발표(2018. 9.12.)
- _____(2018b). 취약계층의 사회적 통증에 대한 지역합의기반 자살예방전략. 울산광역시 자살예방포럼 기초강연(2018.7.19.)
- _____(2014). 인권적 관점에서의 자살취약계층과 사회적 과제. 국가인권위원회.중앙자살예방센터
- _____(2011). 100세 시대 대비 고령사회 노인자살대응정책 개발: 사회복지적 측면에서의 접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지영, 이성규, 이은진, 임현우, 나유재(2017). 빈곤계층밀집지역 노인자살예방사업보고서. 보건복지부.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 백인립, 김홍주(2014). 사회적 타살의 사회경제적 의미: 자살에 대한 개인심리적 접근을 넘어 사회구조적 대안을 향하여. 비판사회정책 44: 326-260
- 송승연(2016). 중장년층의 사회적 배제, 우울, 그리고 자살생각의 관계.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4(3). 64-92
- 이정화, 오영은(2016). 노인단독가구 노인의 사회적 배제, 우울 및 자살생각: 성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 생활과학회지 27(4). 831-850
- 장근영, 전우영(2015). '사회적 통증'개념을 통한 청소년 정신건강 이해: 중독과 자살생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조성희, 김경미(2016). 노년기의 차별 및 배제경험에 대한 인식정도와 자살생각과의 관계: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72(3). 359-387
- Geoff MacDonald, and Lauri A. Jensen-Campbell(2011). Social Pain: Neuropsychological and Health Implications of Loss and Exclusion.
- Jennie Popay, Sarah Escorel, Mario Hernández, Heidi Johnston, Jane Mathieson, Laetitia Rispel(2008). Understanding and Tackling Social Exclusion.

토 론 문

김 종 례 대 표

(복지연합신문)

앞서 초반부에 박지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1991년 이래 우리나라 노인자살사망자수는 총 84,041 명으로 이중 남성노인 55,621 명, 여성노인은 28,420 명>

즉 남성노인 자살자가 여성노인 자살자의 두 배정도 높다는 의견에 동감하며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성적인 측면, 남성이 여성에 대한 성적 우위에 있습니다. 또는 남성이기에 근로적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 황혼기에 이러한 우월성이 상실되는 남성노인이 더욱 많이 자살을 한다는 것과도 충분한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인, 그들의 생애는 가족, 헌신, 그리고 늙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자신들에게 어떠한 노년을 선사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보다는 현재의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술한 노동을 지속했으며,

노년. 다시 시작된 노동, 생존의 문제들

그들은 누군가의 도움보다는 평생을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 스스로 현실을 이겨내고 싶어 했다. 사회적 지원이라는 것이 자신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그동안 놓을 수 없었던 노동을 다시 시작했다.

따라서 말씀하신 '노동빈곤층'은 자살과의 연관성에서 저 또한 맞다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교수님께서 본론에서 말씀하신

사회적 배제 부분에서 가족, 의료, 복지 이 세 가지는 노인이 자신의 일상에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보호, 관계, 기능유지에 필수 조건이기에 노인이 생물학적으로나 심리사회적으로 생존하기 위해 요구되는 필수 환경요건들로부터 배제되었을 때, 자살위험성은 높아진다고 설명할 수 있으며

사회적 통증에서 의미있는 타인이나 집단으로부터 평가절하되거나 혹은 원하는 관계로부터 배척받을 때, 마치 심리적 통증을 경험하게 된다. 하셨는데

본 발표자는

노인의 생애를 재구성하면서 이를 과거 유교적 문화로 인해 우리가 금기시하는 성적인 면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적 배제와 통증에서 모두 생물학적, 심리적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정작 이는 성적인 것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 자리에서 청취하시는 분들은 다들 전문가 이십니다. 물론 발표하는 저희는 더욱 전문가이기에 발표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요.

누구나 아는 사항을 이 귀중한 시간에 발표하기 보다는 발표자 스스로 좀 더 폭넓고 깊이

있는 발표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노인의 성과 우울 나아가 자살과의 연계라는 것을 수면위에 올리 지 않으면 누가 올리겠습니까?

저는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관련 자료가 사회복지 전공 대학원생들의 졸업논문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도하시는 교수님들께서 공개석상에서 노인의 성에 대해 열띤 토의가 있어야 대학원생들의 논문도 심도가 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남자 어르신을 목욕시키는 여자 요양보호사와의 상호 시선과 어색함과 부끄러움 ‘과연 몇 날 며칠 후에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 있는데’ 그 결과가 급속한 우울과 극단적인 자살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앞서 교수님의 자살 통계에서 언급된 달러가 없어 IMF를 맞은지 얼마나 지났다고 과거 유교적인 문화인 제사를 지내는 설과 추석에 국민의 1%가 해외여행을 가는 시대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노년에 화려한 원색의 옷을 입고, 노화된 피부를 감추기 위해 진한 화장을 하며 선글라스를 착용합니다. 이 또한 우리가 금기시하는 성적인 측면인 것입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사회적인 지원과 서비스는 임시방편이기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마음이 지금의 노년층에게 있다면 우리 사회가 노년층에게 좀 더 자신을 위해서 섹시하게 꾸미고, 갱년기를 모르고 살게끔 건강을 위해 먹고 싶은 것 먹고, 선글라스 착용하고 운동도 하게끔 성적인 측면에 대해 우리사회는 관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살예방은 배제로부터 통합하고 사회적 통증에서 사회적 치유로 하려는 노년층의 섹슈얼리티 더 나아가 원초적인 성에 대한 관대함이 사회전반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 록

- ◆ 본 연구회 소개
- ◆ 본 연구회 토론회 개최 연혁
- ◆ 공지사항

<본 연구회 소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

설립목적 :

대한민국이 선진복지국가로 가는데 필요한 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를 위한 각종 연구, 조사, 계몽 활동 및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파악 및 해소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고 이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목적으로 함.

2009. 10. 15 창립

2011. 1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경기도 제 1237호)

2012. 10 법인설립허가 (경기도 제 2012-01-90호)

2013. 07 기획재정부 지정기부단체 등록

2014. 09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시민사회소통부 협력단체

2014. 11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보건복지부 제 196호)

2013~ 『제 2인생 설계를 위한 전문가 과정』

시니어LIFE코디네이터 자격증 수여/보건복지부 승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등록번호2015-001578)

2009. 10~ 분기별 복지 현안정책 토론회 개최

2014~ 성남시 사회복지박람회 부스 운영 참가

2015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

2015 휴먼네트워크 멘토링 지원사업

2016 행정자치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나눔국민운동본부 권역별 나눔교육 수행기관

통일부 『통일박람회』참가 - 부스명: 통일이랑 복지랑 step by step!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방송물 모니터링사업

『제 7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참가-부스명:오병이어를 만드는 사람, 사람들

2017 행정자치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지원사업 선정

나눔국민운동본부 권역별 나눔교육 수행기관 선정(보건복지부)

제 8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부스참가

하반기 경기도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 선정

2018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인활동지원사업 선정
경기도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선정
나눔교육운동본부 생애주기별 나눔교육 선정 (보건복지부)
제 9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부스참가

**‘한국 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2010.7.16), ‘저출산 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 과제’((2011.2.18),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2011.6.15),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2012.6.29) 토론회를 MBC뉴스 토론회 풀영상 이나 본 연구회 홈페이지에서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2014.10.22 『공무원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2015.2. 26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통합방안-북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중심으로』, 2015.7.9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준비 실태와 정책과제』토론회자는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법 제 20조근거로 보존,전수, 이용 되고 있습니다.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본 연구회 토론회 개최 연혁〉

29차〉 2018. 05. 02(수) 국회의원회관 제 3 간담회의실

주 제 : ‘정치제도의 개혁, 사회복지발전에 왜 필요한가?’

주제발표자: 홍경준 교수(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사)좋은나라 연구원 이사장)

토론자 :

- 1 : 양재진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행정학과/ 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 소장)
- 2 : 정종순 기자(중앙일보)
- 3 : 노대명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부 사회: 이 진 박사 (국회 사무처 정책연구위원)

2부 사회: 김진학 박사 (본 연구회 이사/ 전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

28차〉 2017. 10. 17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과 건강 - 장기요양보험과 중장년 실업대책 및 재교육-

제 1주제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선진적 운영방식 모색

발표자 : 선우덕 명예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자 : 1) 서동민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조선일보)

3) 유승호 교수 (건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성북구치매지원센터장)

제 2주제 : 중장년 실업대책과 재교육운영방식 모색

발표자 : 김영생 선임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토론자 : 1) 한국은 초빙교수 (숭실대학교)

2) 최상덕 연구위원 (한국교육개발원)

3) 지은정 부연구위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 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사)좋은나라연구원

리더십한림원

사회복지교육실천포럼

한국사회복지포럼
후 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27차> 2017. 06. 29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기조 발제 및 좌장: 노인복지정책 방향:고령인력 참여복지(Smarter Ageing)
- 정경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회 원장

발 표 1 : 사회복지서비스 과제: 복지체감도와 현실성

- 김 미 혜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발 표 2 : 문재인정부의 노인 건강과 돌봄의 공약에 대한 평가와 과제

- 전 용 호 교수(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발 표 3 :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과 복지재원 조달방안

- 김 재 진 선임연구위원(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

주 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리더십한림원

사회복지교육실천포럼

한국사회복지포럼

후 원 : 행정자치부

26차> 2017. 02. 23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프리미엄 특강 1. 한국 복지정책의 효율성-균형의 길

정경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회 원장

프리미엄 특강 2 한국사회복지 미래와 과제

김진수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주 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5차> 2016.12.02 광화문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위기의 한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제 1주제 : 일과 빵의 균형개혁

발표자 : 정경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토론자 : 김도형(한림대학교 겸임교수)

제 2주제 : 특권과 반칙없는 공정사회

발표자 : 고재방 (전 교육부 차관보)

토론자 : 최영관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1,2 부 사회 : 이정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공동주최 : 리더십한림원,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24차> 2016.11.24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주 제 : 2016 청소년유해방송물모니터링사업 결과 보고 겸한 토론회

주 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주제발표 : 성윤숙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토론자 : 1) 김정수 대학생(단국대학교 경영학과)

2) 최옥주 교수(건국대학교 영육아보육학과)

3) 박열규 강사(경민대학교 효충교육원)

4) 박찬균 편집국장(복지연합신문)

5) 한병재 감사(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성남지소)

6) 양혜지 간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사 회 : 박미출 원장(한국정책연구원)

후 원 : 여성가족부, 국민대통합위원회

23차> 2016 .10.26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주 제: 고령화시대의 보건의료 과제와 정책제안

주제발표자 : 이진석 교수(서울대 의대)

토 론 자 :

1) 이진한 차장(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

- 2) 정순돌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3) 박은자 센터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으로연구실 보건의료정책연구실)
- 4) 최기춘 실장(건강보험공단 보험정책연구실)

후 원 : 행정자치부, 국민대통합위원회

22차> 2016.06. 21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주 제 : 중장년층의 주거복지 정책과제와 대안

발제 1 : 신성식 기자(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 부국장)

발제 2 : 이연숙 교수(연세대학교 주거복지연구단 단장)

패널 1: 박신영 소장(한국도시연구소)

2: 구혜영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박재만 과장(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1부 사회 : 고은지 박사(본 연구회 이사/ 어린이집 원장)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원: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국민대통합위원회

*e-run TV인터넷 생방송, 데일리안, 한국 NGO 신문 외 5개 언론보도

21차> 2016.02. 03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 공동주최: 이주영의원실

주 제 : 중앙-지방간 복지재정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주제발표자 : 류진석 교수(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

1 : 신성식 중앙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논술위원)

2 : 김태일 교수(고려대학교 행정학과)

3 : 천우정 심의관(국회사무처 행정법제)

4 : 박인환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

5 : 고경환 실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통계연구실)

축 사 : 김무성 새누리당 당대표

서상목 前 보건복지부장관/ 지속기능경영재단 이사장/ 본 연구회 고문

김득린 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송암복지재단 이사장

1부 사회 : 조명숙 교수(본 연구회 부회장)

2부 사회 : 황명진 교수(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국회방송, 한국정책방송 중계, 성남일보, e-runtv 인터넷 생중계

*중앙일보 등 다수 언론에 노출 됨

20차> 2015. 10. 22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 현황과 제안

(*토론회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으로 제공)

주제발표자 : 김주섭 한국고용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 론 자 :

1 : 이준우 교수(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 김정태 센터장(서울시 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

3 : 김동준 센터장(전경련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4 : 정양범 부장(매일경제 생애설계센터 센터장)

5 : 이수민 국민연금서울북부지역본부 본부장

축 사 : 서상목 前 보건복지부장관/ 지속기능경영재단 이사장/ 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최옥주(본 연구회 부회장/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

2부 사회 : 이정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 행정자치부,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19차> 2015. 7. 9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 준비 실태와 정책과제

(*토론책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으로 제공)

주제발표자 : 정경희 센터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고령사회연구센터)

토 론 자 :

- 1 : 김현수 박사(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 팀장)
- 2 : 이상철 팀장(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
- 3 : 김경록 소장(미래에셋은퇴연구소)

축 사 : 김영래 현 아주대 명예교수/ 전 동덕여대 총장
조성철 본 연구회 고문/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1부 사회 : 고은지 (본 연구회 부회장)

2부 사회 : 이정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 행정자치부

협 찬 : 국민연금공단

***연합 외 12개 언론 기사

18차> 2015. 2. 26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통합방안-북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중심으로

(*토론책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으로 제공)

주제발표자 : 최 균 교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 원장/ 한림대학교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 1 : 고수석 연구위원(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 2 : 유근춘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 3 : 김은주 소장
(통일준비위원회 사회문화분야 전문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소)

- 4 : 김원섭 교수(고려대학교 사회학과)
- 5 : 은성호 과장(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과)

축 사 : 유 지 수 총장(국민대학교)

1부 사 회 : 조명숙 교수 (본 연구회 부회장)

2부 사 회 : 이정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17차〉 2014. 10. 22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공무원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토론책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으로 제공)

주제발표자 : 김진수 교수(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좌 장 : 도미향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남서울대학교 교수

토론자 :

- 1 : 김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
- 2 : 최진봉(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 3 : 유근형기사(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축 사 : 박범진 이사장(미래정책연구소/ 선진복지사회연구회 고문)

사 회 : 김혜숙 교수(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6차〉 2014. 6. 20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주제발표자 : 황명진 교수(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좌장 : 도미향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남서울대학교 교수

토론자 :

- 1 : 양점도(한국복지행정학회 회장/ 경북대학교 교수)

- 2 : 구종희(동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 3 : 양성근(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
- 4 : 권오영(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변호사)
- 5 : 이동우(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사무관)

축 사 : 최성균 회장(한국사회복지미래경영협회)

사 회 : 김준경 교수(남서울대학교)

15차〉 2014. 4.30 토론회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관 501호

제 1 주제 ‘저출산 원인과 대책’양찬희 과장(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제 2 주제 ‘출산장려를 위한 일가정 양립정책’

.....이삼식 박사(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본부장)

제 3 주제 ‘출산장려를 위한 보육 및 일.가정 양립정책’

.....도미향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남서울대학교 교수

좌 장 : 김한곤 회장(한국인구학회/ 영남대학교 교수)

토 론 자 :

- 1 : 박미숙(천안시 여성가족과장)
- 2 : 김태희(백석문화대 교수/ 천안시 직장맘지원센터장)
- 3 : 이명숙(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4 : 이은하(천안시 어린이집 연합회 가정분과장)

축 사 : 공정자 총장(남서울대학교)

주 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천안시, 남서울대학교

후 원 : 보건복지부

14차〉 2013. 11. 14 (목)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복지사각지대 빈곤층의 정책과제와 대안

주제발표 : 강명순 이사장 사단법인 세계빈관퇴치회)

토 론 자 :

- 1) 박병현 교수(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2) 이태진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 3) 서병수 소장(한국빈곤문제연구소)

축 사 : 조성철 회장(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영숙(전 세종대학교 총장/ 본 연구회 고문)

후 원 : 국민연금공단

1부 사회 : 김혜숙 교수(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부 사회: 이정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13차> 2013. 7. 5 (금)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창조경제를 통한 한국형 복지전략

주제발표 : 안상훈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위원장)

토 론 자 :

- 1) 김정근 박사(삼성경제연구소 경제정책실 수석연구원)
- 2) 최 균 교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 원장/한림대학교사회복지학과)
- 3) 이창곤 소장(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 4) 유종일 교수(KDI 국제정책대학원)
- 5)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축 사 : 차홍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전 보건복지부 장관/ 본 연구회 고문

오영숙 전 세종대학교 총장 / 본 연구회 고문

후 원 : 현대자동차

1부 사회 : 정윤경 소장 (말샘/글샘언어교육연구소/ 본 연구회 운영위원)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영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12차〉 2013. 3 7(목) 사단법인 허가 및 창립 3주년기념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주 제 :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주요 대선복지공약을 중심으로

주제발표 : 허준수 교수(숭실대 사회복지학부/경실련사회복지위원장)

토론자 :

- 1) 신성식 기자(중앙일보 사회복지전문)
- 2) 정은상 님(일반시민패널공모 선정)
- 3) 현진권 소장(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 4) 김동열 실장(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수석연구위원)
- 5) 김명훈 박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제도위원장/강남세브란스병원사회사업팀장)
- 6) 김재진 박사(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축 사 : 차홍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호 행복세상 이사장(전 법무부장관)

김영래 동덕여자대학교 총장(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공동대표)

오제세 국회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장)

축시낭송 : 정윤경(본 연구회 운영위원)

후 원 : 국민건강보험

1부 사회 : 도미향 교수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영동대학교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11차〉 2012. 10. 25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주제발표자 : 신 영 석 부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자 :

- 1) 김동섭 조선일보 사회복지전문기자
- 2) 이준우 교수(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원장)

- 3) 조중근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
- 4)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과장
- 5) 김선희 한노총 사회정책국장
- 6) 윤철수 의료개혁국민연대 대표

축 사 : 김정례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유양근 부총장 / 본 연구회 고문

후 원 : 홈페이지

1부 사회 : 나임순 교수(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10차> 2012. 6. 26.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

주제발표자 : 이 준 영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 1) 신인석 교수(중앙대 경영학과)
- 2) 이의영 교수(경실련 전 상집위원장/ 군산대 경제학과)
- 3) 김광기 경제선임기자(중앙일보 경제연구소 부소장)

축 사 : 심윤종 총장(前 성균관대학교 / 국민희망포럼 이사장)
임성택 총장(그리스도대학교)

후 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미래정책연구원

1부 사회 : 진석범 교수
(동서울대학교 실버복지학과/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mbc 뉴스 토론회풀영상

9차〉 2012. 3. 9.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의 모색

주제발표자 : 홍경준 교수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1. 박미출 (일반시민토론자 신청공모자에서 선정)
2. 허준수교수(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숭실대 사회복지학과)
3. 이정한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장
4. 박기환 교수(국민대학교 경영대학/ 본 연구회 이사)
5.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축 사 : 조 성 철 회장(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 인 복 회장(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구 본 홍 사장(cts기독교TV)

최 란 이사장(대한민국 서울문화예술협회)

후 원 : 고용노동부, CTS기독교TV

협 찬 : 대구은행

1부 사회 : 나임순 교수(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선진사회복지연구회)

***연합, 뉴시스 및 5개 언론 기사

8차〉 2011. 12. 20 창립 2주년 겸한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누가, 어디에 기부하고 자원 봉사하는가?—나눔 주체 및 선호에 대한 이해

주제발표: 강철희 교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1) 강학봉 사회공동모금회 사업본부장
- 2) 임혜성 보건복지부 나눔정책팀장
- 3) 곽대석 cj 나눔 사무국장
- 4) 김현옥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 회장

5) 안명옥 전국회의원/나눔공동체

축 사 : 차홍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본 연구회 고문

김원길 전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숙 전 세종대 총장/ 본 연구회 고문

후 원 : 보건복지부, IBK기업은행, CTS기독교TV

축 가 : 소프라노 이윤순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 'Memory'(추억), 〈캣츠〉

1부 사회 : 석말숙 교수(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선진사회복지연구회)

***연합 및 언론사 6기사보도

7차> 2011. 9. 27 토론회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한국 복지재정의 효율성 및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

주제발표자 :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

토론자 :

1. 박용오 사무총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 홍백의 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김재진 박사(한국조세연구원 예산분석센터장)
4. 장상수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선무

축 사 : 심윤종 前 성균관 대학교 총장/국민희망포럼 이사장

후 원 : SK사회적기업지원단

1부사회 : 박서영 교수(신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사회 : 박기환 교수(국민대학교 경제학과/ 본 연구회 이사)

***뉴시스 및 연합 등 5개 언론사기사

6차> 2011. 6.14 토론회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

주제발표자 : 김용하 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자 :

- 1) 김미혜 교수 (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원장)
- 2) 이기영 단장(보건복지부 베이비부머정책기획 총괄)
- 3) 우재룡 소장(삼성생명은퇴연구소)
- 4) 최용민 님(베이비부머해당 토론자 신청공모에서 선정된 일반시민)

축 사 : 김성이 前보건복지부 장관

조성철 한국사회복지사 협회 회장

오카리나 특별연주 : 오영숙 前세종대 총장(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진석범 교수(동서울대 실버학과)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삼성생명, 한국경제신문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 뉴시스 및 6개 언론사 기사 게재

5차> 2011. 2. 17 토론회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주 제 : 저출산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과제

주제발표자 : 이삼식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

토 론 자 :

1. 정영훈 과장(대통령직속기관 미래기획위원회 사회복지정책과)
2. 도미향 교수(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3. 안명옥 이사장(한국여성인권진흥원/17대 국회의원)
4. 류기정 사회정책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축 사 :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차홍봉 회장(한국사회복지협의회/ 前 보건복지부장관)
오영숙 총장(前세종대총장)

축 가 : 장선주 (바리톤), 이동형 (테너)

후 원 : 보건복지부, 대통령미래기획위원회, 롯데백화점

1부 사회 : 도미향 교수(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선진사회복지연구회)

***언론-mbc뉴스토론회 플영상 및 연합뉴스, 데일리안, 뉴시스, 뉴일리, 조선일보

4차〉 2010. 10. 01 토론회 성남시청 3층 대회실

주 제 : 고령화시대 경제성장의 뒀안길에 선 한국 노인들

주제발표 : 최성재 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사장)

토론자 :

1. 나임순 교수(백석대)
2. 신영석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
3. 곽순현 서기관(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4. 김영진 회장(성남시 노인복지시설연합회)

축 사 : 차 홍 봉 前보건복지부 장관
(2013년 세계노년학 · 노인의학대회 대회장)

후 원 : 성남시, S · K사회적기업지원사업단

1부 사회 : 박기환 교수(국민대학교 경영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선진사회복지연구회)

3차> 2010. 07. 12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한국적 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을중심으로

주제 발표 : 정무성 원장

(前승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위원)

토 론 자 :

1. 박현준교수 (연세대학교 사회적기업지원센터소장)
2. 김재춘 정책국장 ‘아름다운가게 ‘
3. 정태길 사무국장 ‘함께 일하는 재단
4. 박찬민 총괄실장(S.K사회적기업지원사업단
5. 윤 준현 대표(주)에이스푸드
6. 모동희 대표 남한산성반딧불이학교(예비사회적기업)

축 사 : 오영숙 전 세종대 총장

축사문 보내주신분 :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선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언론---mbc 뉴스 토론회 촬영상

1부 사회 : 이승훈 교수(국제대학교)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선진사회복지연구회)

2차> 2010. 02. 25 토론회 성남 신청사 대강당(온누리관)개최

주 제 :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과 지역복지발전의 과제

주제발표 : 백종만 학장(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토 론 자 :

- 1) 진석범 교수(동서울대학교)
- 2) 장향만 사무관(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실지역복지과)
- 3) 이애련 교수(경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 4) 장운영 도의원(한나라당)
- 5) 지관근 시의원(민주당)

축 사 : 장석권 前단국대 총장

김경우 회장(성남시 사회복지연합회/을지대 교수)

1차〉 2009. 12. 10 오전 11시, 창립기념 제 1차 토론회 개최

주 제 : 미래한국 복지건설을 위한 신구상

주제 발표 : 강욱모 (국립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 론 자 :

- 1) 김병숙 교수(건국대학교행정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 2) 김창남 교수(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정치학박사)
- 3) 조순태 소장(강남성폭력상담소, 한국사회문제연구원)
- 4) 정무성 교수(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축 사 : 박범진 前 총장(한성디지털대학교/ 현 미래정책연구소 이사장)

〈 공 지 사 항 〉

1. 교육일정 : 1회 - 9월 7일(금) 오후 3시~ 오후 5시
 2회- 10월 13일(토) 오전 10시~오전 12시
 3회- 10월 18일(목) 오전 10시~오전 12시
 4회- 10월 18일(목) 오후 15시~오후 5시
 5회- 10월 19일(금) 오후 5시~오후 7시

생애주기별 나눔 교육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Bravo 시니어 자원봉사단

————— 소중한 나를 위한 9988작전 —————

대 상	만 60세 이상 지역 어르신
일 시	2018년 8월 ~ 10월
장 소	분당노인종합복지관

나눔 실천봉사활동

활 동 : 문화공연 필요 기관 방문 공연 진행
 기 간 : 2018년 9월~10월, 총 6회(월 3회)
 대 상 : 문화예술분야 교육 참여 어르신
 장 소 : 분당노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 수요처

문화예술나눔교육

1) 나눔교육
 프로그램 : 나눔의 의미와 필요성,
 나눔 실천방법 등
 기 간 : 2018년 8월~10월,
 총 6회(회당 2시간)
 집단 나눔교육 1회 /
 소집단 분야별 나눔교육 5회
 대 상 : 만60세 이상 지역 어르신 120명

2) 문화예술 전문교육
 프로그램 : 가곡, 사물놀이 등
 총 9개 분야
 기 간 : 2018년 8월~10월, 총 6회
 대 상 : 만 60세 이상 지역 어르신 120명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사회복지법인 부강종합복지재단
분당노인종합복지관

사) 선진복지사회연구회

100인 원탁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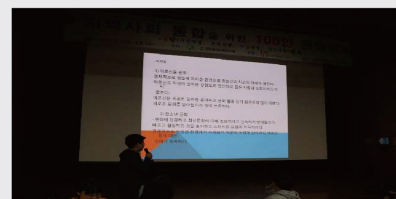
• 주 제 : **4 랑 해 요 !**

- **지역** 사랑, **세대** 사랑, **이웃** 사랑, **가족** 사랑 -

- 장 소 : 성남상공회의소 3층 대강당
- 일 시 : 7월 14일(토) 오후1시-5시
- 참여 대상 : 100인(청소년, 대학생, 성인)
- 주 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후 원 :  경기도자원봉사센터

프 로 그 램 순 서

- ✓ 13:00 - 13:30 개회선언, 국민의례, 인사말, 행사개요 및 취지 설명
- ✓ 13:30 - 14:30 개별의견서 작성, 토론
- ✓ 14:30 - 14:40 토론 내용 취합, 실시간 전송
- ✓ 14:40 - 14:50 휴식 및 간식 타임
- ✓ 14:50 - 15:50 각 조별 발표
- ✓ 15:50 - 16:00 휴식 및 최우수 조 선발 투표
- ✓ 16:00 - 16:20 시상, 광고, 기념촬영
- ✓ 16:20 - 16:30 탄천정화활동



2018년

일시-2018 .6. 12(화)~14(목)

- ◆장 소 : 제주일대(사려니숲길, 4.3평화공원, 세계 조가비 박물관, 올레 7코스, 약천사 등)
- ◆컨 셉 : **희망, 가즈아~~!!**
- ◆함께하는 이들 : 멘티 여자 청소년 20명
멘토 여성중앙년 20명

6월 12일 (첫째 날) 김포 15시 40분 비행기

오후 5시 제주도착
5시~6시 숙소 도착 및 방배치
6시~7시 저녁식사 및 휴식
7시~9시 라포형성을 위한 친교의 밤
9시 ~ 자유시간 및 취침

6월 13일 (둘째 날)

오전 7시~8시 기상 및 아침식사
9시~12시 올레길 (7코스)
오후 12~1시 점심
1시~3시 이동 및 바닷가
3시~5시 이동 및 세계 조가비 박물관
5시~6시 30분 이동 및 약천사
7시 숙소 도착
7시~9시 저녁을 곁한 바비큐 파티
9시 자유시간 및 취침

6월 14일 (셋째 날) 제주 14시 55분 비행기

오전 7시 ~8시 기상 및 아침식사
8시 30 ~9시 50분 이동 및 사려니 숲길
9시 50분 ~11시 30분 4.3 공원
11시 30 분 ~ 1시 이동 및 점심식사
오후 1시~2시 제주공항도착

연구회 소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

대한민국이 선진복지국가로 가는데 필요한 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를 위한 각종 연구, 조사, 계몽 활동 및 복지선달체계의 문제점 파악 및 해소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고 이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목적으로 함.

연혁

2009. 10. 15 창립
2011. 1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경기도 제 1237호)
2012. 10 법인설립허가 (경기도 제 2012-01-00호)
2013. 07 기획재정부 지정기부단체 등록
2014. 09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시민사회소통부 협력단체
2014. 11 비영리민간단체등록(비복지부 제 106호)
2015~ "제 2인생 살계를 위한 전문가 과정"
시니어LIFE코디네이터 자격증 수여(보건복지부 승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등록번호 2015-001578)
2015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자
유엔네트워크 멘토링 자회사
2009. 10~2014~
경기북부 복지 현안정책 토론회 개최
성남시 사회복지자문회 참가
부스영 건강이 복지대 나눔이 복지대
행정자치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자
나눔국민운동본부 권역별 나눔교육 수행기관
통일부 통일이행 캠페인 참가
부스영 통일이행 복지관 also by story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활동 모니터링사업
2016 "제 7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참가
부스영 오송이아를 만드는 사람, 사람들
행정자치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여성가족부 양성활동지원사업 선정
나눔국민운동본부 권역별 나눔교육 수행기관 선정
제 8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참가
2017 6반기 경기도지정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 선정
2017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2018 경기도지정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 선정

본 연구회에 의해 우리나라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많은 선제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후원계좌 : 105-702-64082 우리은행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지정기부단체로 기부영수증 발급
주사무소 : (3539) 경기도 성남시 중구 서문로 210번길 2 성지하이츠빌 1119호
TEL. 070.8793.5202 FAX. 0504.404.2652
E-mail : 2silent@hanmail.net



2015년

일시-2015 .8. 29(토)~30(일)

- ◆장 소 : 순천만 청원, 갈매대, 보성 녹차밭, 담양소쇄원, 밭길
- ◆컨 셉 : **꿈과 행복을 부탁해!**
- ◆함께하는 이들 : 멘티 여자 청소년 20, 멘토 중앙년 여성 20명 멘토링

2016년

일 시-2016 .8. 27(토)~28(일)

- ◆장 소 : 강릉 일대 (KIST 강릉 분원방문, 오죽헌, 관아, 허균허난설헌 기념관, 경포대, 안보전시관, 정동진 레일바이크, 천리무즈)
- ◆컨 셉 : **나는 소중 하나!!!**
- ◆함께하는 이들 : 멘티 여자 청소년 20, 멘토 중앙년 여성 20명 멘토링

2017년

일 시-2017. 7. 8(토)~9(일)

- ◆장 소 : 전남 목포, 진도 팽목항, 이순신 장군 동상, 해남 땅끝마을, 고산 윤선도 유적지, 세종청부청사
- ◆컨 셉 : **Yes, I Can!**
- ◆함께하는 이들 : 멘티 여자 청소년 20, 멘토 중앙년 여성 20명 멘토링

